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34) (6/24/2021)

제 1 권 영적 삶에 유익한 권면들

제 20 장 고독과 침묵을 사랑함, 3-5 절

사 26:20 - 내 백성이 같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시 4:4 -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마 6:6 -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시 34:9 -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 37:49-50 - 49.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40.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고전 10:12 -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3. 성도의 안전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부터 오고, 그들은 큰 덕들과 깊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함 가운데서도 세심하고 겸손합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안전함은 교만과 주제넘음으로부터 생겨나고, 그 결국은 절망과 파멸입니다. 당신이 훌륭한 수도자이거나 경건한 은둔자 같이 생각될지라도, 현세에서의 안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4. 사람들로부터 높이 추앙받는 사람들일수록, 그들의 지나친 자만심으로 인해서, 더욱 큰 위험에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내적으로 아무런 시험도 받지 않고 지내는 것보다는, 심심치 않게 시험을 받아 맞서 싸우는 것이 유익합니다. 아무런 시험이 없이 지내게 되면, 지나치게 안일한 삶을 살게 되고, 마음이 높아져서 지나치게 교만해지며, 세상이 주는 위로들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집착하게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덧없는 기쁨들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일들에 얽매이지 않을 때에만, 선한 양심을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온갖 헛된 염려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우리의 구원에 속한 일들과 하나님께 속한 일들만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뢰할 때에만, 큰 평안과 고요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오직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살피서 통회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자 한다면, 홀로 골방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요란함을 차단하십시오(사 26:20).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잠자리에 들어서 침상에 누워 통회하십시오(시 4:4). 자신의 골방으로 물러나 있게 되면, 밖에서는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이 생각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마 6:6). 오래 머물다 보면, 골방이 친근해질 것입니다. 반면에, 골방을 멀리하면, 그 곳은 낯설고 피하고 싶은 곳이 될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골방에 오래 머무십시오. 그러면, 그 후로는 골방이 당신의 사랑스러운 친구가 되어 주고, 즐거운 안식처가 되어 줄 것입니다.

**말씀과 해설:**

성도가 누리는 영적인 안정감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설사 우리가 억만금을 가지고 이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 없다면, 심령에는 공허감과 함께 불안과 염려가 자리하여 내면을 흔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삶이 흔들릴 수 있다. 죄악된 이 세상과 연약한 인간 그리고 물질은 결코 우리에게 영적 안정감을 줄 수 없다. 시 20:7-9 - 7.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8.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9.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시 34:9 -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시 37:49-50 - 49.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40.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안정감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결코 교만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님 앞에 겸손하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애쓴다. 그 이유는 영적 안정감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결코 자만함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으며 늘 낮아지는 마음과 성찰의 마음을 유지한다. 성경은 하나님 경외와 겸손은 같이 가는 것임을 알게 한다. 잠언 15:33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22:4 -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성경은 성공하고 높아지고 칭찬받을수록 시험 당할 수 있음을 알고 조심할 것을 권고한다. 고전 10:12 -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잘되고 평안할 때 영적인 나태에 빠질 수 있는 우리에게 때때로 일정 기간 이런 저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완전히 다 막지 않으시고 부분적으로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그 시험은 우리를 각성하게 하고 연단하며 하나님을 더 찾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한다. 시 139:23 -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약 1:2-4 -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벰전 4:12 -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주시는 안정감과 평안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뿐만 아니라, 그 경외함을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참회를 실천할 때도 주어진다. 사 57:15 -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한적한 곳 혹은 골방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긴밀한 영적 만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성찰과 통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시 4:4 -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마 6:6 -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기도는 우리를 삶에서 승리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과 안정감을 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의뢰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2. 세상이 타락하고 혼돈스러울수록 나는 나 자신의 골방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온전하고 친밀한 동행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3. 코비드 19 을 온전히 종식시켜 주시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